

이슈

약용되는 생리공결 제도, 세부 시행세칙 마련 필요

김혜준 기자 khj_hyejun@knu.ac.kr

생리공결 제도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되고 있다. 생리공결 제도는 생리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학생의 결석을 공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출석 인정) 1항 5호에 따라 월 1회 생리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여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해주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는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교육현장에도 도입됐다. 그리고 우리학교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07학년도 2학기부터 생리공결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학교 생리공결 신청방법이 지나치게 간단해 악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 결석사유 발생 뒤 7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후 해당 교·강사가 직접 Info21에서 출석인정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승인하면 출석 인정 절차가 완료된다. 타 질병과는 다르게 별도의 서류나 확인과정 없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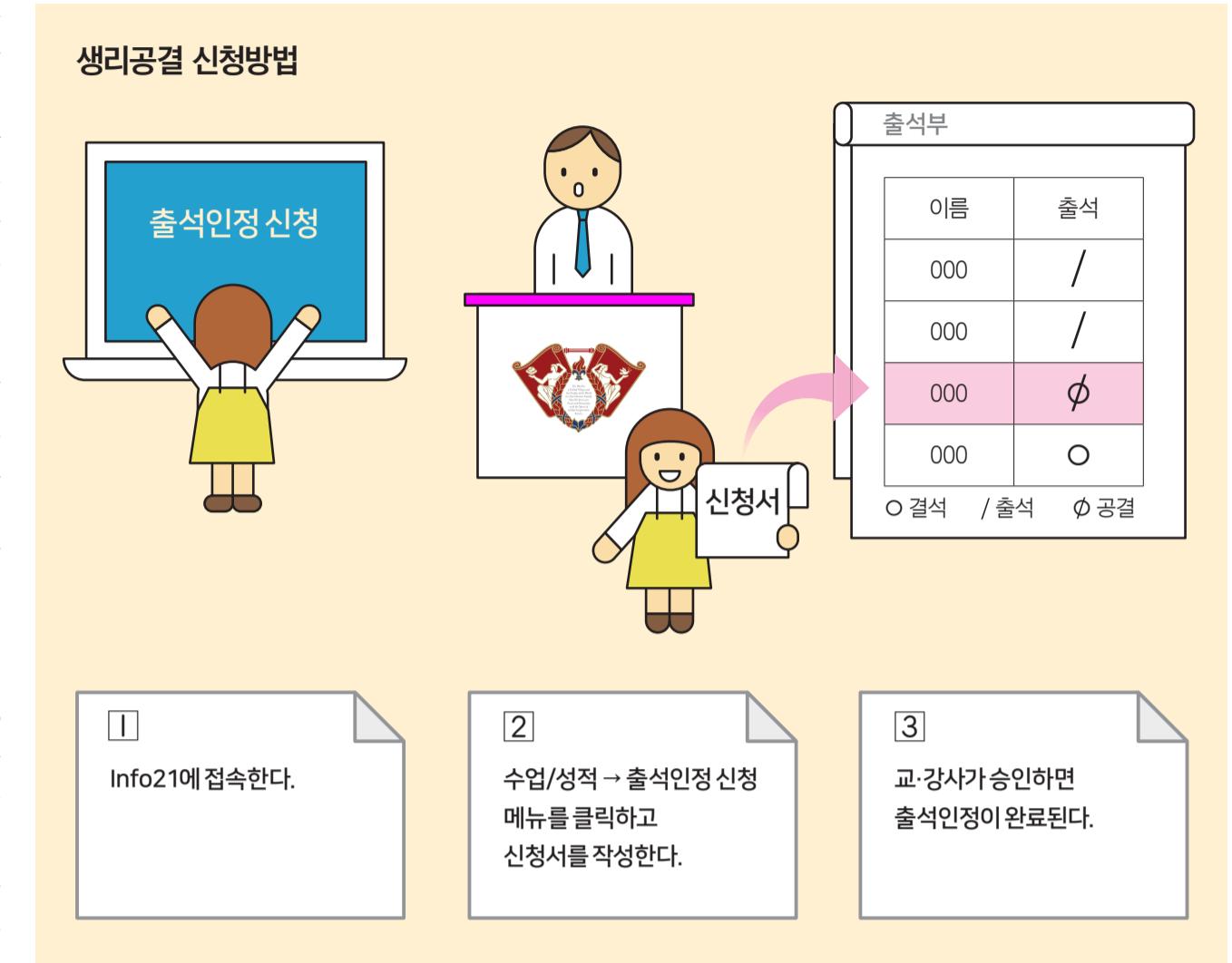
그 결과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제도를 악용하는 학생들이 발견되는 상황이다. 김민철(체육학 2018) 씨는 “축제기간에 같은 조원 여학생 3명이 동시에 결석하고 다음 수업시간에 생리공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본 적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씨는 “최근에는 남자친구의 군대 외박 날짜에 맞춰 생리공결을 사용했단 글을 SNS에 올린 동기가 있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제도에 대해 잘못된 인식 가지고 있는 것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생리공결 제도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했다. 황고은(한국어학 2018) 씨는 “생리통으로 인해 배가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날에는 일상생활조차 하기 어렵다”며 “생리공결을 사용한 날에는 하루 종일 누워서 쉬는 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지윤(유전공학 2018) 씨는 “생리공결 제도는 생리통이 심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전했다.

악용 가능성은 제도적 허점에서 발견된다. 월말에 생리공결을 사용하고 내달 초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점도 지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 시행세칙을 마련해놓은 대학도 있지만 우리학교는 없는 상태다. 우리학교 생리공결 제도의 세부 시행세칙은 생리공결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와 결석 일수가 강좌 당 해당 학기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적과 직접 관계되는 시험 등에도 불허한다는 것뿐이다. 이에 반해 연세대는 한 학기 최대 5일, 1회 최대 2일까지 생리결석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사용은 3주 후부터 가능하도록 세칙을 설정했다. 이는 평균 여성의 생리 주기가 약 28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울시립대는 생리로 인한 결석에도 병원장 직인이 날인된 병원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하나를 첨부해 소속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단, 관련 서류를 학기 중에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기로 작성된 처방전은 출석 인정 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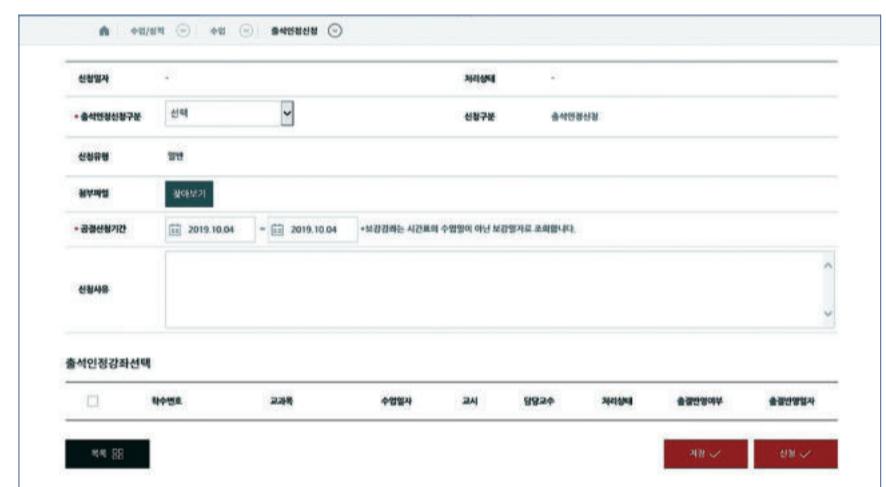
서울권 주요대학 12곳 중 생리공결 제도를 정식 도입한 대학은 8곳이다. 생리공결 제도를 정식 도입하지 않은 대학 4곳 중 한 대학인 서강대는 지난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총 3학기 동안 생리공결 제도를 시범운영했지만 끝내 정식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제도 시행 분석 결과, 생리로 인한 결



석이 일반 결석의 패턴과 차이점이 없어 일반 결석의 대체수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악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식 시행을 거부한 것이다.

또한 생리공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서울대는 아직 생리공결제도에 대한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무처 학사과 측은 “상위 규정상 생리공결 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인권위 권고사항으로만 알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하지 않으려 한 것보단 관련 논의 자체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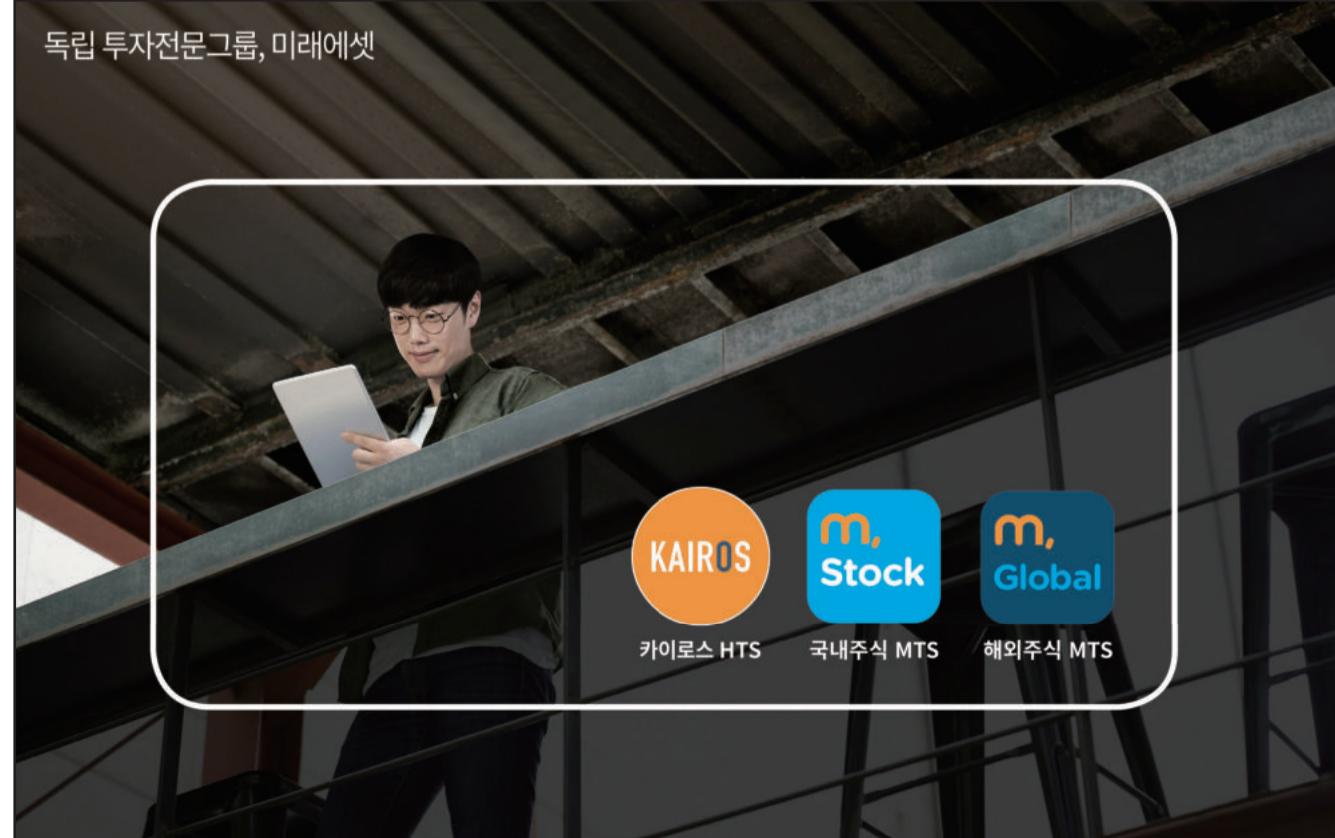
이러한 논란 속에 생리공결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인 대학도 있다. 숙명여대는 이번 학기부터 생리공결 제도를 시



▲ 우리학교 생리공결 신청은 Info21에서 이뤄진다.

범운영하고 있다. 숙명여대 교무처 학사팀 측은 “시대의 흐름과 학생들의 요구로 생리공결 제도를 도입했다”며 “2019학년도 2학기부터 한 학기 동안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문제가 발생할 시 규정 아래 시행세칙을 세부적으로 설정해 정식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립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



한번 다운로드, 평생 글로벌 투자파트너- 미래에셋대우

좋은 파트너 선택이 평생투자를 좌우합니다.
앞선 파트너와 함께하세요

-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 글로벌 리서치센터
-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총 33개국 거래 가능 (온라인/오프라인 포함)
- 국가간 환전 없이 당일 사고파는 통합증거금 서비스

*일부 통화한정 / 실시간 결제환율 적용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 1588-6800]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는 투자에 있어 그려진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신규 영업점 개설 계좌 온라인 0.14%, 오프라인 0.49% 신규 디렉트 계좌 온라인 0.014%, 오프라인 0.4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해외주식거래시 수수료는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0~1.00%(국가별 거래수수료 상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해외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